

6천피 뚫은 코스피 과열 우려... "너무 빨리 올라 무서워"

체감경기와 따로가는 증시... "삼전·니스 뺀 체감지수는 3900~4000" 대형주 위주 장세에 개미들 "남 이야기 같아...반도체주 과도 의존 불안"

코스피가 올해 초부터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6000선마저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하지만 증권가의 상승 전망과 불장에도 투자자 사이에서는 코스피가 급격히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6083.86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전날 5900선 돌파에 이어 하루만에 6000선마저 넘어섰다.

코스피가 급격하게 성장한 이유는 상승 추세를 그리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밝다. 최근 3개월 동안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다수 증권사는 코스피 상장법인 189곳의 올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시장 평균 전망치를 527조 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말(357조 1000억원)과 비교해 47.75%나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시가총액(시총)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예외주시하고 있다.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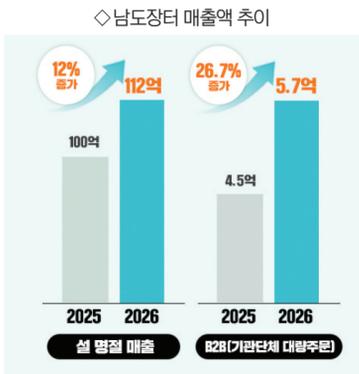
피 상승세가 반도체와 전기·전자 업종 등의 대형주를 위주로 지속됐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코스피 상승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실적 전망치는 197조 6000억원으로 전년 말(193조 6000억원)보다 2.05%만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대략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의 추정치의 10~11배 머무를 때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현재 실적경제 대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실적 상승폭도 가팔라졌다는 점이다. 두 기업을 제외한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코스피는 3900~4000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코스피는 올 들어 급격히 상승했던 만큼 투자자들이 빠르게 하락할 것을 우려해 장기 투자보다는 빠른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장세가 둔화할 경우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며 차익 실현에 나서고, 코스피 전체가 조정장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증시가 이미 과열 상태를 넘어섰다는 주장도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들의 시총을 국내 총생산(GDP)으로 나눠 산출하는 '버핏지수'는 지난해 말 기준 180%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통상적으로 버핏지수가 120%를 넘어서면 해당 장을 과열

상태로 보고 있다.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역대급 불장에도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현민(33·광주시 남구)씨는 "개개인마다 투자 방식이 다르지만 주식으로 소시민 탈출을 하려면 안정적인 대형주보다는 변동성이 큰 소형주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 불장에선 대형주 위주로만 올라 저를 포함한 주변 개미 투자자들 상당수가 별다른 이익을 보지 못했다"면서 "삼성전자는 '국민 주식'으로 불리는 만큼 오르면 오를 수록 좋긴 하지만 대규모로 매수하는 기관들만 큰 수익을 올리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남도장터 설 매출 112억...국내 대표 유통 플랫폼 자리매김

전남 농축수산물 판매 쇼핑몰 지난해보다 12억원 매출 상승



자체 쇼핑몰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대한민국 수산대전' 사업에 참여, 7억 20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도 참여하면서 1억원의 매출을 추가 달성했다. 물가 상승에도 저렴하게 전남산 농·수·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어 판매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남도장터측은 "철저한 품질·업체 관리와 주문·정산 자동화, 품목별로 '맞춤형 라이브 커머스'를 집중하는 등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꾀한 내부 운영 시스템도 매출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김경호 남도장터 대표이사는 "생산자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신뢰할만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역할 뿐 아니라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한 '수급 조절 및 소비 촉진 특별 기획전' 등을 기획·운영하는 공공 유통 플랫폼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부 공모사업을 연계한 다양한 할인 지원 정책도 매출 상승에 한몫을 했다. 남도장터는 전국 지



농관원·전남도 공익직불제 분야별 논의

달라지는 직불사업도 안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는 지난 24일 나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2026년 공익직불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익직불제 광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농관원 전남지원과 19개 농관원 시·군 사무소, 전남도와 22개 시·군 공익직불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달라지는 공익직불사업 홍보, 직불금 감액 우려 농지에 대한 사전 안내, 의무교육 미이수자 이수율 제고 방안, 전략작물직불

이행점검 적합률 제고 방안, 부정수급 합동조사 등 분야별 논의가 이뤄졌다. 또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는 합동조사반 편성을 통해 직불금이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실제 농업인이 신청했는지 여부와 준수사항 실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박은영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인들께서도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의무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업 생산현장 점검·애로사항 청취



광주지방조달청은 25일 '여수 혁신제품 지정기업인 주식회사 이에스'를 방문해 혁신제품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사진> 주식회사 이에스의 혁신제품 '기립·승강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갖는 GIS기반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은 지상에서 유지보수를 하거나 추락 사고를 원천 차단했다.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했으며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통합 관제로 실시간 위치와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스마트 장에 진단으로 대응 시간을 단축했다. 김우현 광주지방조달청장은 "과감한 기술 투자로 혁신제품을 지정받은 기업이 공공편리를 통해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지난해 출생아 수 전년 대비 광주 7.8%·전남 6.1% 증가

전남 합계출산율 전국 1위 유지

지난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추락했던 합계출산율도 회복 추세를 보였는데, 전남은 합계출산율 1.10명을 기록하며 전국 1위 자리를 이어갔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출생아 수는 6500명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전국(6.8%)보다 출산 증가폭이 컸다. 전남 출생아 수는 8700명으로 전년보다 6.1%

늘었다.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17개 시·도 모두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결혼식을 미뤘던 예비부부의 혼인이 집중되면서 이듬해에 출산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가임 여성 1명 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 역시 전국적으로 상승 추세다. 지난해 광주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여전히 1명에 미치지 못했지만, 1년 전보다 8.8% 증가하며 충북(9.0%)과 서울(8.9%)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전남 합계출산율은 1.10명으로 1년 전보다 6.5% 상승했다. 지난해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으며, 세종(1.06명)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을 넘긴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시·군 단위로 보면 전남에서도 영광이 1.79명으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고, 장성(1.68명), 강진(1.64명) 등은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인 0.8명의 2배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또 목포(0.78명)를 제외하면 전남 22개 시·군 중 21개 지역이 전국 평균치를 모두 넘어섰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난해 카드 해외 사용 33조 역대 최대...전년비 5.5% 증가

비거주자 국내 사용 금액 18% ↑

지난해 해외여행과 해외 직접 구매(직구)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5년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 해외 사용 금액은 229억 1000만달러(약 33조원)로 집계됐다. 종전 최대인 2024년(217억 2000만달러)보다 5.5%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했고, 온라인 쇼핑 해외 직구나 앱스토어, 구독 결제 등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55만명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고, 온라인 쇼핑 해외 직구 금액도 59억8000만달러로 1.0% 늘었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156억9000만달러)와 체크카드(72억2000만달러)가 각각 1.3%, 15.7% 증가했다. 체크카드 해외 사용 금액이 매년 급증해 신용카드 절반 수준까지 불어났다. 트래블카드가 이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은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해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 금액도 140억8000만달러(약 20조3000억원)로 전년보다 18.2%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여행객 입국자 수는 1893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5.7%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K컬처 인기 등에 해외 여행객 방문이 크게 늘면서 이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신협중앙회 지역 이사 광주·전남 3명 선출

이옥규·문경환·김학산 이사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이옥규 중흥신협 이사장, 문경환 강진신협 이사장, 김학산 전 끝별신협 이사장이 신협중앙회 이사로 선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앞서 지난 24일 대전시 유성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53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중앙회 이사 15명을 선출했다. 광주·전남에서는 3명이 이사직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신협법 및 신협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별 이사제'가 처음으로 도입·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지역별 이사제 도입이 그동

안 전국단위로 이뤄진 선출 구조로 인해 특정 지역의 의견을 운영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 지역별 인사들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I가 금리인하 요구...연1680억원 이자 절감

소비자 대신 요구권 행사 서비스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소비자를 대신해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서비스가 26일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파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데이터사업자 13개사와 은행·상호금융·카드 등 금융회사 57개사 등이 우선 참여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전산 개발 완료 시 각각 5개사, 39개사가 추가돼 총 114개사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파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승 등을 파악해 금리인하요구를 대신 신청해주는 것이다. 파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한다. 소비자는 1개 파이데이터 사업자를 선택 후 자산을 연결하고, 보유 대출 계좌를 선택한 다음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동의하면 된다. 이후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최대 월 1회 정기 신청하거나, 소득 상승 등 인하 요구가 사유가 발견될 때마다 신청한다. 만약 요구가 거절된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 추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해

주기도 한다. 이 서비스에 소비자의 관심도 높다. 지난 4일부터 서비스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인원이 전날 기준 총 128만5000명에 달했다. 금융위는 작년 12월 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했다. 그동안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해 알기 쉽지 않고, 신청하더라도 불응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반영했다. 실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25년 163만8000건으로, 전년(389만5000건)보다 225만7000건 감소했고, 수용률은 28.8%로 2024년보다 4.9%포인트(p) 줄었다. 이에 따라 이자 감면액은 같은 기간 1469억원 감소했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 최대 1680억원의 이자가 추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6083.86 (+114.22)
↓ 코스닥	1165.25 (+0.25)
↓ 금리(국고채 3년)	3.124 (-0.034)
↓ 환율(US D)	1432.35 (-10.15) (오후 5시 06분 기준)